

2. 통화신용정책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동 체계 하에서도 정책결정은 물가상황 외에 경제성장,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를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여수신제도,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 등 금리 이외 정책수단도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2020년 중에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다양한 대출 지원제도와 시장안정 조치를 도입하였다.

가. 물가안정목표

한국은행은 2016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로 설정하고 있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 시에는 목표수준을 종전(2016~18년)과 동일하게 2%로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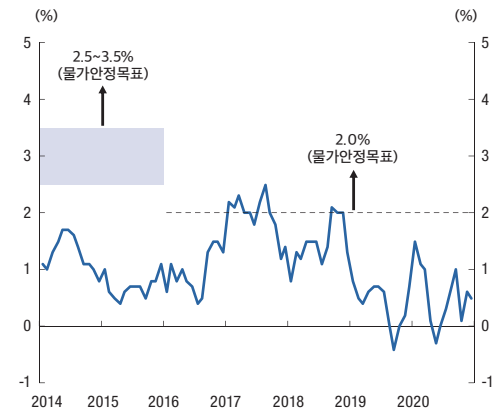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2020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로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낮은 오름세를 보여 2019년에 이어 물가안정목

표를 상당폭 하회하였다.

한국은행은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연 4회 발간, 국회 요구 시 총재의 국회 출석 및 답변 등을 통해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 2회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물가상황 전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노력하였다.

한편 2020년에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³⁷⁾하였으며, 그 결과 물가안정목표제 운영방식을 다음 점검시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림 III-1. 물가안정목표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나. 기준금리

한국은행은 2020년 중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확대하였다.³⁸⁾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37)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2018년 12월) 시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2년 주기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3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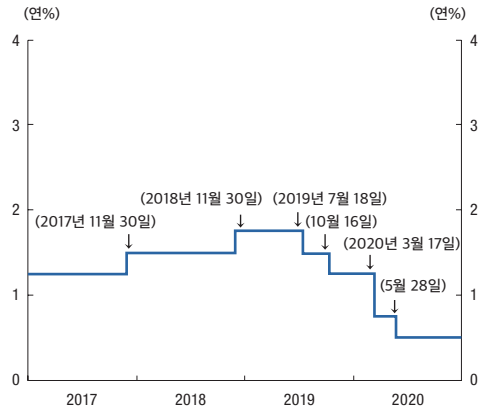
확산에 따른 급격한 금융시장 불안 및 실물경제 침체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0.75% 포인트 인하하여 저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였다.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가 국내외에서 급속히 확산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3월에 금융통화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0.50% 포인트 인하하였다. 정책효과 면에서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 운용,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 등을 고려할 때 정례회의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임시회의를 통해 즉각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이어 5월에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이 큰 폭 하향 조정된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추가 인하하였다.

하반기 중에는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른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수출 부진이 완화되는 가운데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 및 그간 취해진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의 파급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으로 대체로 원활히 파급되었으며 금융상황 개선을 통해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악화 간 부정적 피드백을 방지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으로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소득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에서도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풀림이 심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다.

그림 III- 2. 기준금리



자료: 한국은행

다. 여수신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등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수신업무를 수행한다. 2020년 중 운용한 여수신업무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조정대출, 일중당좌대출 등이 있으며, 수신업무로는 당좌예금, 자금조정예금 및 통화안정계정예치금 등이 있다.

금융기관 등에 대한 원화대출금은 2020년 말 34조 2,723억 원으로 2019년 말 대비 18조 7,039억 원 증가하였다.

표 III- 2. 한국은행 원화대출금¹⁾ (기말 기준)

	잔액		증감액
	2019	2020	
금융중개지원대출	155,684	325,123	169,439
회사채·CP 매입기구 (SPV ²⁾)에 대한 대출	-	17,600	17,600
합계	155,684	342,723	187,039

주: 1) 대정부대출금 제외

2)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유한회사

자료: 한국은행

예수금은 2020년 말 156조 5,959억 원으로 2019년 말 대비 23조 503억 원 증가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원화예수금이 12조 7,942억 원 증가하고 외화예수금이 10조 2,561억 원 증가하였다.

표 III - 3. 한국은행 예수금 (기말 기준)

	잔액		증감액
	2019	2020	
원화예수금	742,548	870,490	127,942
금융기관	697,229	833,391	136,162
비거주자 ¹⁾	45,319	37,099	-8,220
외화예수금	592,908	695,469	102,561
합계	1,335,456	1,565,959	230,503

주: 1) IMF 등 외국기관의 원화예금
자료: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강화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를 2020년 중세 차례에 걸쳐 기존 25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18조 원 증액하였다.

구체적으로는 3월 9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를 5조 원 증액하여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의 여유 한도를 활용하여 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1조 원 증액하였다. 3월 19일부터

는 피해범위 확산에 대응하여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³⁹⁾하는 한편 자영업자 및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⁴⁰⁾하였다. 이후에도 피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5월 18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를 5조 원 추가 증액하였다.

10월 5일부터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 원을 신규 지원⁴¹⁾하는 한편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운용 한도를 10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3조 원 증액하고 운용기한을 6개월 연장⁴²⁾하였다. 아울러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의 설비투자 지원⁴³⁾ 규모를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2조 원 확대하고 운용기한을 1년 연장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유인 제고,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자금사정 개선 등을 위해 3월 17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인하하였다.

한도 증액을 반영한 2020년 말 기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43.0조 원이며 프로그램별 한도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2.5조 원,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3.0조 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5.5조 원,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5.9조 원, 한도유보분 16.1조 원이다.

39) 종전의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여행업, 여가업 및 운수업에서 서비스업 전체(일부 사행성 업종 등 제외)로 확대하였다.

40) 은행의 자영업자 및 저신용(6~10등급)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대한 한국은행 지원 비율을 50%에서 75~100%로 상향하였다.

41)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 2021년 3월 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의 100%를 지원한다.

42) 이에 따라 운용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이 종전 2020년 9월 말에서 2021년 3월 말까지로 변경되었다.

43) 2019년 10월 1일부터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3조 원 규모로 1년 간 지원하기로 하였다.

표 III- 4.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조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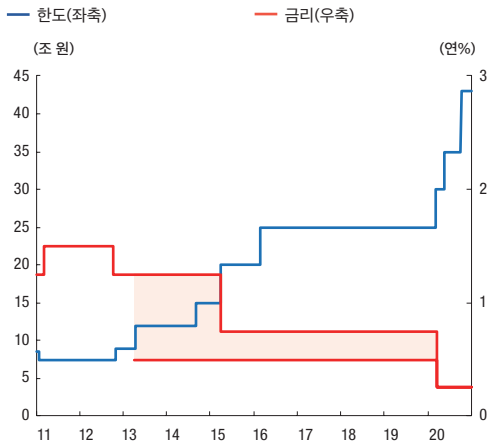
(조 원, 연%)

프로그램	한도		금리 ¹⁾	
	조정전	조정후		
무역금융지원	2.5	2.5	0.25	
신성장·일자리지원	10.0	13.0	0.25	
중소기업대출안정화 ²⁾	6.5	5.5	0.25	
지방중소기업지원	5.9	5.9	0.25	
한도 유보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	13.0	0.25
	소상공인 지원	-	3.0	0.25
	기타	0.1	0.1	0.25
합 계	25.0	43.0	-	

주: 1) 2020년 말 기준

2) 기존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기취급 잔액 등을 포함하여 지원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I- 3.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및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특별대출 등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 도모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및 기업 등의 자금조달 애로에 대응하여 대출 적격담보증권을 확대하고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설립하고 동 SPV에 대출을 실시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이 필요시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고 은행들의 한국은행 대출에 대한 담보 제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⁴⁴⁾ 적격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표 III- 5.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대출 적격담보증권	비고
기존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추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 3개 특수은행채 ¹⁾ 일반 은행채(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 채권 포함), 9개 공공기관 ²⁾ 발행채권	- 2021년 3월 31일까지 유효

주: 1)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예금보험공사

자료: 한국은행

아울러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⁴⁵⁾하여 5월 4일부터 시행⁴⁶⁾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기업의 신용증권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과 협력하여 7월 14일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설립⁴⁷⁾하고 7월 23일 SPV에 1.78조 원 규모

44) 단,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은 4월 14일부터 적격담보증권에 추가되었다.

45) 대출금리는 통화안정증권 182일물 금리에 85bp를 가산한 금리이며 대출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의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 대출한도는 10조 원이다.

46) 동 제도의 운용기한은 종전 2020년 8월 3일에서 3개월 단위로 2차례 연장(2020년 11월 3일 → 2021년 2월 3일)되었다.

47) 한국은행의 선순위대출 8조 원, 산업은행(정부)의 출자 1조 원, 산업은행 후순위 대출 1조 원을 통해 10조 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필요시 최대 20조 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로 대출을 실시하였다. SPV는 한국은행 대출금과 산업은행의 출자 및 후순위 대출 1.22조 원 등 총 3조 원 규모⁴⁸⁾로 대출 재원을 조성하여 7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회사채·CP를 매입하였으며 2020년 말 현재 매입 규모는 2.5조 원 수준이다.

표 III - 6. SPV의 신용등급별 회사채·CP 매입 현황¹⁾²⁾

(억 원, %)

신용등급 ³⁾	금액	비중
AA(A1)	5,400	21.9
A(A2)	13,551	54.8
BBB(A3)	5,760	23.3
합계	24,711	100.0

주: 1) 2020년 12월 말 기준

2) 액면금액 기준

3) ()내는 CP 신용등급

자료: 한국은행

라. 공개시장운영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콜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발행,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통화안정계정 예치 등 다양한 공개시장운영 수단을 활용하여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조절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전액공급방식 RP매입,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유동성 공급경로를 확충하였다.

신축적인 유동성조절 및 제도개선

2020년 중 유동성조절 필요규모(평잔 기준)

는 180조 6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6조 6천억 원 감소하였다. 이는 화폐발행 증가 등으로 지준공급이 감소한 데다 수시입출식 예금이 증가하면서 지준수요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였다. 한국은행은 이에 주로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며 RP매매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는 지준 수급 변동 등 단기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그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절하였다.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평잔 기준) 및 RP(순)매각규모(RP 매각에서 매입을 차감한 순액, 평잔 기준)는 유동성조절 필요규모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각각 5조 원, 2조 5천억 원 축소되었다. RP(순)매각규모 감소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금융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3월 중에 실시한 비정례 RP매입과 4~7월 중 실시된 전액공급방식 RP매입 등으로 RP매입이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였다. 한편 통화안정계정 예치규모(평잔 기준)는 9천억 원 증가하였다.

표 III - 7.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 규모 (평잔 기준)

(조 원)

	2019	2020				
	연간	I	II	III	IV	
유동성조절필요규모	187.2	180.6	180.0	179.6	181.9	180.8
통화안정증권	168.1	163.1	161.6	164.0	166.4	160.3
RP(순)매각잔액	10.5	8.0	11.6	2.2	6.2	11.7
RP매각	10.6	13.0	12.1	14.5	13.1	12.2
RP매입	0.1	5.0	0.5	12.3	6.8	0.5
통화안정계정	8.7	9.5	6.7	13.4	9.3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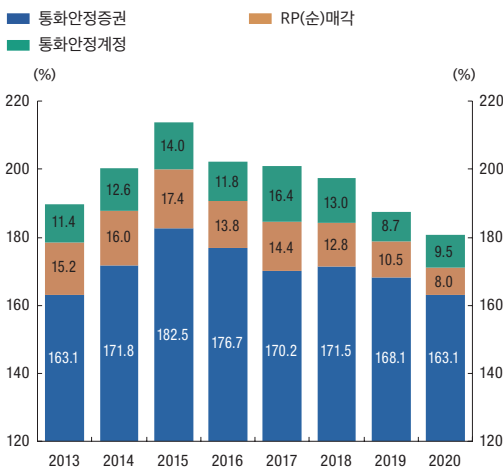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48) SPV의 재원 조달은 4차례에 걸쳐 capital call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1차로 3조 원이 조달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개시장운영 수단에서 통화안정증권과 통화안정계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중 89.8%, 4.6%에서 2020년 중 90.3%, 5.3%로 각각 확대된 반면 RP(순)매각 비중은 2019년 중 5.6%에서 2020년 중 4.4%로 축소되었다.

한편 10월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을 계기로 공개시장운영 입찰 참가기관들에게 입찰마감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입찰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아울러 12월에는 유동성조절 필요규모의 추세적 감소 전망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공개시장운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분기별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 의결주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였다.

그림 III- 4.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 규모 (평잔 기준)



주: 1)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상대매출 3조 4,763억 원(2014년 발행, 2015년 상환)과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상대매출 3조 4,487억 원(2015년 발행, 2016년 상환) 제외

자료: 한국은행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 도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

2020년 3월 중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비은행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동성을 확대 공급할 필요가 커졌다. 특히 한국은행은 3월 하순에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의 자금수요 급증, 분기말 자금수급 불일치 등으로 단기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비정례 RP매입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총 3조 5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다.⁴⁹⁾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 및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전액공급방식의 정례 RP매입」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매주 1회 91일물 RP매입 입찰을 통해 고정금리로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유동성 전액을 한도 제약 없이 지원하는 제도인데 4월부터 7월까지⁵⁰⁾ 총 19조 4천 3백억 원을 공급하였다.

이러한 유동성 공급 확대조치로 인해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사정이 개선되고 장단기 시장금리도 안정세를 회복하였다.

유동성 공급경로 확충

한국은행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확대하였다. 4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RP매매 대상기관이 아닌 증권사 중 7개 통화안정증권매매 대상기

49) 주로 증권사 및 증권금융 등을 대상으로 3월 19일 1조 원, 3월 24일 2.5조 원의 RP매입을 실시하였다.

50) 최초 도입시에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전액공급방식 RP매입의 만기도래분이 일시 상환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료시점을 7월 말까지 연장하였다.

관 및 4개 국고채 전문딜러를 대상기관으로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RP매매 대상기관은 기존의 22개에서 33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되었다⁵¹⁾.

또한 금융기관의 담보여력을 확충할 목적으로 4월에는 1년 간 한시적으로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으로 한정되어 있던 RP매매 대상증권에 3개 특수은행채⁵²⁾, 일반은행채⁵³⁾ 및 9개 공공기관⁵⁴⁾ 발행 특수채를 추가하였다. 또한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는 기존의 국채, 정부보증채 외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 및 3개 특수은행채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조치는 전액공급방식 RP매입 등을 통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금융불안 재발 시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국채 등 무위험 채권 외에 은행채 등 신용증권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유동성 공급 경로를 확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국고채 단순매입 실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한편 국고채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RP매각 대상증권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였다. 3월부터 8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6조 원 규모의 단

순매입을 실시한 데 이어 9월에는 정부의 재난 지원금 지급 관련 국고채 발행 증가에 따른 수급불균형 및 장기금리 변동성 확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9월부터 연말까지 총 5조 원 내외의 국고채를 유통시장을 통해 매입할 계획임을 시장에 사전 공표하는 것이었다. 동 계획에 따라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5조 원 규모로 국고채를 단순매입함으로써 2020년 중 국고채 누적 매입 규모는 총 11조 원에 달하였다.

마.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한국은행은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통화정책 운영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참가자 및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먼저 2019년부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정례적(연 2회)으로 점검하기로 함에 따라, 6월과 12월 두 차례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물가 상황, 전망 및 리스크 요인, 향후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매 분기 발행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의 코로나19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영상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금융안정 책무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제고하는 방향⁵⁵⁾으로 최근의 정책수행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통화신용

51) 해당조치는 매년 8월 공개시장대상기관이 신규로 선정되기 때문에 일단 7월 말까지 유효하였다. 7월 말 발표된 신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유효)에서도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대상기관은 전년(2019년 7월 말 선정 기준)의 22개 기관에서 1개 국내은행 및 4개 비은행금융기관이 추가되어 총 27개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52)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53) 농업금융채권 및 수산금융채권 포함

54)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저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55) 금융·외환시장 불안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정책수행을 반영하여 금융안정 관련 문구를 수정하였다.

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을 수정하였다.

정책 및 업무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대외 커뮤니케이션 패널을 확충하였다. 2019년 50명 수준에 머물던 패널 수를 2020년 11월까지 200명으로 점차 확대하였으며 기존의 학계, 연구소, 금융기관 전문가에 기업 및 산업계, 언론계 인사를 추가 하는 등 패널 구성을 다각화하였다. 확충된 대외커뮤니케이션 패널을 통해 통화정책방향 결정, 주요 보고서, 정책 및 업무 운영 등에 대한 외부의견을 시의성 있게 수렴하여 정책 수립과 업무개선에 반영하였다.

금융통화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도 국민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수행해 왔던 출입기자 오찬간담회나 지역기업 간담회 등의 활동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단되었지만, 대학생, 기업체 임직원, 연구기관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참고 III-1.

한국은행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

안 및 실물경제 침체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기존 금리를 인하하고 피해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장단기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실시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분석하고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글로벌 협력 및 대외소통을 강화하였다.

표 III-8. 한국은행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조치

(2020년 말 기준)

구분	대응조치	주요 내용	
통화 신용 정책	기준금리인하	■ 1.25% → 0.50%(0.75%p)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등	■ 한도 확대 : 25조 원 → 43조 원(+18조 원) ■ 대출금리 인하 : 0.5%~0.75% → 0.25%	
	유동성 공급	전액공급방식 RP 매입	■ 공급실적 총 19.43조 원(7월 말 종료)
		비은행 대상 RP 매입	■ 공급실적 : 총 3.5조 원(3월 19일 1.0조원, 3월 24일 2.5조 원)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하는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및 증권 확대	■ RP매매 대상기관 확대(7월 말 종료) ■ 단순매매 및 RP매매 대상 증권 확대
	국채 및 회사채·CP 시장 안정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도입	■ 총 한도 : 10조 원(운용기한 : 2021년 2월 3일) ■ 대출 담보 : 일반기업 발행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AA-이상) 회사채
		회사채·CP 매입기구를 통한 신용시장 지원	■ 규모 : 10조 원(시장상황에 따라 20조 원까지 확대) ■ SPV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출금액 : 1.78 조원
		국고채 단순매입	■ 매입실적 : 총 11조 원(3월·4월·7월·8월 각 1.5조 원, 9월 2.0조 원, 10월·11월 각 1.5조원)
	거시건전성 분석 평가	■ 가계·기업의 여신 및 유동성 상황 점검 ■ 코로나19 금융지원의 효과 및 리스크 점검	
금융 안정	외환시장 안정	통화스왑 체결 및 갱신	■ 미 연준과 6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왑 체결(만기 : 2021년 9월말) ■ 중국(약 590억 달러) 및 호주(81억 달러) 중앙은행 등과의 통화스왑 확대 및 연장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 총 198.72억 달러 공급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 국내은행(40% → 50%) 및 외은지점(200% → 250%)
		외환건전성 부담금 경감	■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에 대해 3개월(2020년 4~6월) 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기간 제외 등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 금융회사의 외화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미 달러 자금을 공급 ■ 대상 채권 : 미 국채(필요시 미 정부기관채 등으로 확대)	
발권	화폐 수요 변화 대응	■ 오만원권 발주량 확대	
	화폐를 통한 감염 차단	■ 최소 2주간 금고내 보관 후 정사	
지급 결제	금융기관 담보여력 확충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하(70% → 50%) ■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확대	
외환 및 국제협력	외화자산 유동성 및 안정성 제고	■ 외화자산의 안정성 및 유동성 점검 ■ 외화자산 운용의 연속성 확보	
	글로벌 정책공조 논의 적극 참여	■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14회), IMF·세계은행 회의(2회) 참여 ■ 정부와 공동으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정례 4회 + 특별 3회),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1회) 등 참여	
조사 통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 분석	■ 세계교역, 생산, 소비, 수출, 고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의 구조적 변화 등을 분석	
	화상회의를 통한 글로벌 연구 교류 지속	■ Annual Meeting of the CERA, FMA Annual Meeting 참여, 한·일 공동 리서치 워크숍 개최 등	
대외 커뮤니케 이션	비대면 소통 확대	■ 홈페이지 코로나19 정책대응 게시판 신설, 소셜미디어 활성화, 기자간담회 실시간 생중계 등 ■ 디지털 화폐박물관 개설	

자료: 한국은행